

## P베트남 E-learning 교육사업에 관한 조사 및 사례연구

송건호 (주)애니팩스 대표이사

###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베트남의 교육현실과 정책
  - 2.2 베트남의 인터넷 현실과 정책
  - 2.3 베트남의 IT산업 개발 노력
  - 2.4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IT교육)
3. 결론

### 1. 서론

현재 베트남은 공산주의 형태의 국가로서 자유스런 형태로 문제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형식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규모사업은 비효율적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 연구 자료의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또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안목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최대한 사업 계획에 수정 및 보완이 되어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측면이 국제경영현장연구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의미에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교육상황과 정책,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지적수준, 베트남의 GDP, 컴퓨터의 보급률, IT시장 및 IT인구, 인터넷 인프라 구축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베트남의 교육 현실과 정책

베트남은 국가 최우선 과제를 교육이라고 명명하고 2000년까지 박사급 인재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설정을 계획하였다.

- 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와 협력
- 빠른 경제 성장력에 공급이 부족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도입

-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 강화
-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직업훈련 및 영어 교육 강화
- 세계 일류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도입해 2000년까지 박사급 인재 2만 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② 근로자의 약 50%가 농업 부문에 종사함에 따른 경제구조의 모순
- 현재 근로자의 약 5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농부들 중 20%는 소득이 적어 최저 생계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임.
- 현재 여건이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직업훈련 수요가 더욱 증가해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기금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③ 향후 4년간 총 6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함.
- 향후 4년간 전체 근로자 수를 4950만 명으로 늘리고, 도시 근로자 실업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도 도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총 6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예정

- 이고, 이에 32만 명을 해외 근로자로 파견할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해외 노동시장 진출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직업 훈련, 외국어 교육 등의 활성화를 강조함.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66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 훈련소, 대학 및 관련 기관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그 중 114만 명 이상이 장기 교육을 이수했고, 또한 동 기간 중 55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④ 베트남 노동시장 구조변화
- 베트남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Vietnamworks.com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인력수요 증가속도가 인력공급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이에 고급 관리, 재정·회계,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공급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중 많은 외국인 자본이 투자됐으나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주요 기업들의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타 소규모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 빈번한 일이지만 경제발전 속도와 결맞게 고급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교육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고급인력 확보경쟁은 유발하고 있는 것임.
  - 조만간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공학도 및 고급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IT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인텔이 공장을 가동하면 최소 2000명의 고급인력을 채용할 예정임.
- ⑤ 베트남 근로자 임금, 전년대비 평균 12% 상승 전망
- 베트남의 선도적 인력 공급업체인 Navig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급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avigos는 올해 말 기준으로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년대비 평균 12%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함.
  - 베트남의 주요 인력관리 컨설팅업체인 Lee &

Associates는 Navigos의 전망이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함.

- 12%의 인상은 이미 급여수준이 높은 상태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는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함.
- 금융부문 등 특정분야는 150~200%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함.
- Lee & Associates 관계자에 따르면, 고급인력 부족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스카우트해가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남.
- 이러한 고급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은 자질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하고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함.
- Navigos는 베트남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 요인으로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실업률 감소, 높은 물가상승률을 지적함.
- 베트남 임금 인상의 핵심적인 요인인 FDI의 증가 속도에 비해 현지 근로자들의 자질 향상 속도가 현저히 느려 급격한 임금 인상은 유발하고 있다고 함.
- 베트남에 새로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동일분야의 한정된 인력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고급인력 영입을 위해 기존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함.
- 베트남 투자기획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 1~9월 중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1500건의 신규 FDI 프로젝트를 유치 함.
-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33억 달러를 유치함.
- Navigos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4.8%였던 실업률이 FDI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에는 4.4% 수준을 예상하며 실업률 감소도 임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함.
- 또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전망해 임금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 한편,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일자리 수가 전국 일자리 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함.
- 호치민시 46%, 하노이 34%

## 2.2 베트남의 인터넷 현실과 정책

- 1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베트남의 인터넷 사

용수는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정부의 인터넷 대중화 노력과 맞물려 그 수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 수, 이미 세계 평균 수준에 근접해 왔음.

- 현재 베트남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이며 사용자 수는 1800만 명에 이르게 됨.
  -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평균 수준인 21%에 근접함.
  - 특히, 2003년부터 ADSL이 도입되고 서비스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사용자 수가 더욱 급속히 증가하게 됨.
- 현재 베트남의 '.vn' 도메인으로 등록된 웹 사이트 수는 약 5만 5000개에 이르게 됨.
- 교육·비즈니스·건강관리 부문이 인터넷 성장의 중심이 돼 왔음.
  - 대학들은 모두 인터넷에 접속돼 있으며 92%의 기업체, 50%의 고등학교, 50%의 성급(provincial-level) 병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 Vietnam ICT Index 2006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이며 정부부처는 교육훈련부처임.
-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순위에서 교육훈련부는 2005년 하위에서 2번째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섬.
- 외무부 및 농림부가 정보통신기술 사용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광케이블 인터넷 접속(FTTH) 베트남 컴퓨터 회사 FPT의 제공업자 FPT Telecom Joint Stock Co.는 2006년 11월 1일부터 하노이에서 공식으로 FTTH를 개시하였다. 먼저 4~12Mbps로 시작하였고 해외와의 회선은 같은 FPT로 1,100Mbps를 100만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6/8) 광 케이블로 해도 그다지 빨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 농촌 빈곤층 무료 인터넷 제공 프로젝트: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제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전국 2353개 농촌 우체국에서 무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지역사람들도 세계화에 적응해야 함.
  - 베트남 우편통신그룹(VNPT: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Group)은 조만간 농촌 빈곤층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로 수만 명의 농촌 빈곤층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전국 2353개 농촌 소재지 우체국에서 주당 6시간씩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약 1만 명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 VNPT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농촌지역 사람들이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인식해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가난한 농부들도 최신 농업정보를 수시로 입수해 신시장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표 1. 요금표 (VAT 구별)

구분 비용	4Mbps	8Mbps	12Mbps	20Mbps
	0,000,000VND			
월정 기본요금	3,000,000VND	6,000,000VND	13,000,000VND	25,000,000VND
다운로드 속도	4,000 Kbps	8,012 Kbps	12,384 Kbps	20,480 Kbps
업로드 속도	4,000 Kbps	8,012 Kbps	12,384 Kbps	20,480 Kbps
IP 주소	1개			
연과 정기 요금제	7 =			

### 2.3 베트남의 IT산업 개발 노력

베트남은 현재 첨단 기술 산업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IT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는 도시 및 시골지역 전반에 걸친 컴퓨터사용 대중화에 노력 중임.
  - 지난 4년간 베트남의 컴퓨터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20% 수준이며, 100명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돼 있음.
-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다음으로 컴퓨터 소비규모가 큰 시장임.
  - 컴퓨터 시장의 주요 수요층은 중고생, 대학생으로 전체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교사·사무실 직원·사업가 등임.
  -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비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전체의 80%가 소비됨.
  - 과거 컴퓨터 구매의 주된 결정요인은 가격이었으나 최근 소비자의 성향은 무조건 싼 가격의 제품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다소 품질이 좋고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망이 좋은 제품을 선호함.

- 한편, Vinasa (Vietnam Software Association: 베트남 소프트웨어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평균 30~40%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100만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함.
-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이 목표대로 이뤄질 경우 베트남은 인도,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이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보통신 교육을 민간부문에 개방해야 함을 강조함.
  - 작년에 현지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FPT사가 대학을 설립한 이후 일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 및 기관은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 훈련 센터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중임.
- FPT 대학은 2015년까지 6만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할 전망이다.
  - Vinasa에 따르면,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0~08년 간 6배나 성장했으며, 전체 GDP의 0.4%를 차지한다고 함.
  - 베트남 소프트웨어 교육부문을 현재 연간 9000명의 IT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음.

## 2.4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IT교육)

SK텔레콤 (이하 SKT)은 베트남 호치민에 SK텔레콤 IT 센터를 건립하고 송실대학교 SK C&C와 협력, 베트남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기술 무료 교육을 통해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SKT-SSU IT 교육센터'를 오픈한다고 하였다.

SKT가 5백만 달러를 들여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베트남 호치민에 건립한 SK텔레콤 IT센터는 IT교육 및 CDMA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IT 특성화 대학인 송실대와 협력하여 출범하는 'SKT-SSU IT 교육센터'는 베트남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IT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우수 졸업자 대상 한국 유학 기회 및 한국 IT 기업 취업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T-SSU IT 교육센터'는 베트남 정부

산하 전문 IT 교육 기구인 ITTI(Information Technology Training Institute)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어 운영 초기부터 현지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T-SSU IT 교육센터'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는 많으나 교육기회가 적은 JAVA, 오라클, Unix 등 전문 IT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영어 등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차수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이며, 6개월간 1인당 1만 달러 이상의 교육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만 32세 미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IT 지식과 중급 이상의 영어실력을 보유한 베트남 청년으로, 첫 번째 차수의 교육과정에 대한 모집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어 총 331명의 베트남 현지 호치민 공과대학, 호치민 자연과학대학, 하노이 공과대학 등 현지 우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지원, 약 9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1월 23일 총 40명의 최종 수강생을 선발·발표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1년차에는 SK C&C의 전문 IT강사를 파견하여, 매 학기당 40명씩, 연간 총 80명 교육과정을 진행함은 물론 현지 IT 전문 강사도 양성하게 되며, 2년차 이후, 매 학기당 80명씩 연간 총 160명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T-SSU IT 교육센터'를 통해 양성된 IT 전문가의 한국 SK그룹 글로벌 인턴십 기회 및 취업을 지원하고, 베트남 현지 SK텔레콤 신규 사업 분야 및 관련 IT 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졸업생에게는 한국의 송실 대학교로 장학생 유학의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홍보실장 조중태 상무는 "이번 베트남 'SKT-SSU IT 교육센터' 오픈으로 베트남의 IT 전문가 양성 및 IT 기술발전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IT 센터 내 특화된 전문 IT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SKT-SSU IT 교육센터'가 베트남 내 명실상부한 IT 교육의 메카로써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 3. 결론

결론을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베트남의 모든 통계 및 자료, 심지어는 GDP조차도 정부에

의해 발표된 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말하였듯이 이-러닝 교육 사업은 베트남의 교육상황과 정책,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지적 수준, 베트남의 GDP, 컴퓨터의 보급률, IT시장 및 IT인구, 인터넷 인프라 구축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이중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교육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열은 곧 교육비 지출과 연관되는데 베트남의 경우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GDP비례)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현 베트남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기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닝교육은 중산층을 겨냥한 저렴한 사교육비지출을 목적으로 추후 베트남 교육정책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현 베트남의 IT발전 속도와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의 빠른 변화로 2010년이 오기 전에 시장진입이 충분하고 2008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2008년 언어교육(영어, 한국어) 및 컴퓨터 활용(그래픽, 문서프로그램)능력 등 자격증취득을 목적으로 이-러닝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 추후 직무교육 및 중·고등학교 교육 진행도 가능할 듯 싶다. 다만 조심해야 할 사항은 한국 기업들 중 베트남진출에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베트남의 교육기관들과의 연계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베트남 뉴스 무역관 조사자료 종합

## 저자 소개

### ● 송 건 호 (Song-Gun-Ho)

비회원



- 2001년 : 상명대학교 만화학과(학사)
- 2008년 : 아주대학교경영대학원 MBA  
E-Business학과(석사)
- 1997년 : 제1회 대한영상공모전 수상
- 2002년 3월 ~ 현재 : (주)에니픽스 대표  
(E-learning 콘텐츠 기술개발 및 서비스, e러닝 전문기관인증, 벤처기업인증, 이러닝품질관

리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우수교육용콘텐츠선정,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개발업체선정)

<관심분야> : E-learning, 온라인 교육, IT, 문화 콘텐츠